



생명사어이 싸사어 이 이 노 비 노 리 노 비 경쟁력 향상에 진력할 터 이 이 거 이 이 에 노 거 리 터

“사 실 남에게 모범이 될 만한 것도 없고 특별한 영농기법을 개발한 것도 없이 그 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쌀농사에 큰 공을 세운 우수 시·도와 시·군 및 농가에 대한 시상식에서 쌀 생산비 절감 우수단지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한 경북 문경시 영순면 왕태단지의 高在-회장(68)은 수상소감을 이렇게 말하고 자신에게 할애된 이 지면을 극 구 사양했다.

해발 529m의 '이화령고개' 주변에 곧게 뻗은 소나무와 이카시아 나무의 환영을 받으며 굽이굽이 언덕길을 오르내리던 중 어느덧 문경시내에 도착했다. 초행길의 답답함속에 과



農心은 모두 들녘을 맴돌뿐. 텃밭집 움막위에 나뭇구는 호박들을 보며 더없는 적막감과 서러움마저 느낀다

거 공직생활 경험을 가 졌다면서도 겸손한 高 회장의 모습을 기대하 며 왕태리행 수십km길 을 재촉했다. 자신을 해병전우회 소속 불교 신자로 소개한 친절한 택시기사분의 안내를 들으며 달려간 머나먼 초행길은 그저 평화롭 기만 한 농촌풍경으로 다가올 뿐이었다. 취재

팀은 왕태리 남루한 시골가옥 뒷편에 자리잡은 2천여평의 과수원 원두막집에서 사과포장으로 분주한 검게 그을린 高회장 부부를 발견하고는 우리 농촌의 서글픈 현실을 한눈에 읽을수 있었다. 노동력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농사일이 너무 힘들어 금년으로 그만둘것이라는 高회장 부부도 쉽게 떨쳐 버릴수 없는 천직이 농사일임을 끝내 감추지는 못했다.

高회장을 중심으로 한 왕태단지논 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매우 낮아 지력저하로 벼쓰러짐이 많아 쌀품질 및 안전농산물 생산을 저해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30ha의 결빙기 객토사업과 36ha의 퇴구



단지 전면적에 양질 다수성 품종을 비롯, 정부 장려품종 76ha식부로 單收 6백60kg을 생산해낸 왕태단지.

비비용 및 벼짚갈기, 40ha의 가을 깊이갈이를 하는 등 농토배양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쌀 품질향상과 병해충 방제에 기여해 왔다. 또 생명산업인 쌀 지급기반 유지를 위한 경지 재정리사업으로 58호의 쌀 전업농가의 농기계를 지원하고 공동이용 조직육성으로 농작업의 완전기계화를 이룩하였다.

쌀 생산비와 노력비 절감효과가 뛰어난 벼 직파 재배를 단지면적의 34%인 36ha에 식부하고 일품, 추청벼 56ha의 생산물을 미곡종합처리장과 계약

재배를 실시하는 등 생산비 절감대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 결과 쌀kg당 생산비를 전국 평균 8백73원보다 2백93원이나 낮은 5백80원으로 낮추어 전체 2억5백만원의 생산비를 절감함으로써 쌀 1천4백가마 정도의 증수효과를 보았다.

高회장은 또 2천여평의 과수원 농사도 겸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농약은 더 없는 일꾼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년 수회이상 살포하는 노동력과 농약값이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고도기술 벼농사 시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는 영농단계별로 행정·지도기관의 협조를 받

아 양질 다수성품종 확대재배 교육과 평당 포기수 확보교육, 병해충 방제 교육 등 5회에 걸쳐 4백37명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시회를 개최한 高회장은 특히 지난해 쌀 생산추진 종합평가 도단위 대회에서 단지사업 추진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한 벼 재배기술을 널리 전파하였다.

高회장은 또 지금은 WTO 출범과 모든 농산물의 수입개방이 불가피하여 특히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주곡인 쌀도 단계적으로 개방되게 됨에 따라 생산기반이 붕괴될 위험에 직면해 있다면서 생명산업인 쌀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한 결과 경쟁력을 한층 더 제고한 것으로 자평했다. 그러나 상을 받을만큼 자신의 노력은 결코 크지 않았다고 겸손해 하며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을 연신 닦아냈다. **농약정보**